

‘열풍건초 사각압축포장 기술’ 개발...유통·저장 편의성 높여

- 기존 대형 원형 베일 형태를 20kg 내외 소포장으로 개선
- 이물질 제거·밀봉 공정 적용해 품질 균일화
- 운반·급여 편의성 향상 ...현장 공급 확대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기존 열풍건초 생산시스템의 현장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열풍건초 사각압축포장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장성과 유통 효율을 높인 현장 중심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국산 열풍건초는 주로 무게 약 250kg 내외의 원형 베일 형태로 유통돼 소규모 농가나 승마장 등에서는 별도 장비가 없으면 취급하기 어려웠다. 또한, 개봉 후 장기간 보관 시 수분이 다시 스며들어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기존 원형 베일

사각 압축 포장 시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존 사각 압축포장 장비를 활용해 열풍건초를 20kg 내외 소포장 형태로 압축·밀봉할 수 있는 적용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원형 베일보다 무게와 부피를 줄여 운반과 급여가 쉽고, 압축 공정과 이물질 제거 공정을 함께 적용해 품질 균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각 베일보다 압축 밀도를 약 2배 수준까지 높여 저장·운반 효율을 개선했다.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 조사료 열풍건초 이물질 제거 투입 장치(출원번호: 10-2025-0078077)

밀봉 소포장 형태라 여름철 장기 보관이 용이하고, 인력이 부족한 축산 현장에서도 손쉽게 운반·급여할 수 있어 유통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기술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종별 급여 시험도 함께 진행했다. 시험 결과, 국산 열풍건초는 가축의 성장과 우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우 농가는 약 7%, 젖소 농가는 약 3% 수준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열풍건초 생산 경영체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등을 대상으로 총 50톤 규모의 열풍건초를 공급했다. 하반기에는 민간 축산농가와 섬유질배합사료(TMR) 업체 등 현장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시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국산 열풍건초의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 건초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국내 풀사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열풍건초 유통 및 사각압축포장기 참고 자료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관	정종성 (041-580-6748)



□ 국산 열풍건조 공급 관련 사진



국산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열풍건조 운반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열풍건조 급여 준비



승용마 열풍건조 급여

□ 열풍건조 사각 압축포장 시스템

구분	사각압축포장기	원형베일	수입건초
생산물 무게(kg)	20 내외	250 내외	30 내외
크기(cm) *가로×세로×높이	66×36×29	지름 120 ×높이 120	53×30×43
압축밀도(g/cm ³)	0.290	0.184	0.438
관련 사진			

* 수입 건초 제조업체에 따라 무게 및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



사각 압축포장 과정



열풍건조 사각압축 포장시스템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열풍건조 생산물